



“인재양성부터 정주까지”...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지방 소멸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대학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대학은 더 이상 교육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청년을 키우고 기업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한 가운데 광주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있다. 광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목표로 인재양성, 산업혁신, 창업지원, 지역정주,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편집자 주

◇지역 미래전략산업 교육과정 운영

광주·전남 지역은 수십년 동안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많은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대학 졸업생들도 취업 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

RISE사업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무억유통학과 학생들은 지역 물류기업 및 제조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산업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론으로 배운 공급망 관리와 유통 전략을 현장에서 적용하며 실무 역량을 높이고 있다.

한 참여 학생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과 현장은 확실히 달랐다. 기업이 실제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해하게 됐고 취업 준비 방향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는 경쟁력을,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기업·학생 상생 모델 육성

RISE사업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기업 지원이다.

RISE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대학과 협력해 지역 산업 전략과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이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를 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육성할 수 있고, 대학은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광주대는 대학이 보유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사업단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제품의 실증, 시제품 제작과 디자인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광주 지역 한 생활용품 제조기업은 대학과 협력해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했다. 이후 신규 거래처 확보와 매출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는데 대학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대는 이처럼 대학의 연구성과가 논문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에게는 기술 경쟁력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착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광주대 RISE사업단은 창업선도모델인 ETSS(Educate-Train-Support-Scale Up)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지역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을 운영해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실제로 지역 청년 창업자가 운영하는 식품 브랜드는 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온라인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했다.

창업자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어려웠는데 전문적인 마케팅 지원 덕분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대는 단순한 창업교육을 넘어 사업화, 마케팅, 투자 연계까지 지원하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인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광주대 RISE사업단의 차별화된 강점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진행된 중국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 학생들은 광저우의 산업단지과 글로벌 기업, 첨단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글로벌 의료환경을 이해하고, 해외 기업의 운영방식을 배우며 세계 시장의 흐름을 직접 체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 대학 학생도 충분히 세계 무대에 뛰어 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집중

중소기업 기술·제품 실증 등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호응’

지자체·기업 등 협력 생태계 마련

지역민 삶의 질·도시 경쟁력 향상

“지방 혁신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이 밖에도 재학생 10명은 지난해 일본에서 ‘2025 RISE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해 ESG를 주제로 한 해외 산업 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학생들의 글로벌 시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탐방을 넘어 팀을 구성해 ESG 우수사례 분석, 현장 기반 문제 해결 아이디어 도출, 탐방내용 정리·최종 발표 등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며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웠다.

광주대는 앞으로도 해외 대학·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 인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역혁신허브지리매김

광주형 라이즈 사업의 가장 큰 특징과 방향은 지자체와 대학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 일자리 수요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 또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대학의 경계를 허문 지·산·학 연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또 캠퍼스 혁신을 위한 대학별 특성화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구현,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지역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 등으로 구성된 단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광주대는 최근 지역 주요대학과 광주·전남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과거 대학 간 경쟁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업무협약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지역혁신은 어느 한 대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대 RISE사업단은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형 프로젝트도 확대하고 있다.

청년 정주 문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역·대학 함께 성장하는 모델”

김동진 총장은 “RISE 사업은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며 “학생과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대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연결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대는 RISE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또 지역 산업,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며 광주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광주대 RISE사업단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실행 주체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 기업이 성장하는 지역, 대학이 사랑받는 지역. 광주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라이즈의 미래는 결국 지역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지방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 되고 있다. /박선욱 기자



김동진 총장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글로벌 판로개척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RISE사업 지원을 받아 교내 호심미술관에 구축한 물입형 미디어플랫폼.



(광주대학교 제공)